

‘김원중의 달거리’ 을 공연 시작합니다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음악·미술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 또다른 볼거리

가수 김원중씨가 지난 2003년부터 열고 있는 ‘뽕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는 지역민들이 직접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 후원금과 관람객들이 낸 입장료는 ‘북녘어린이영양방공장사업본부’로 보내져 북녘 어린이들의 허기를 달래는 데 쓰인다. 첫 행사 이래 10여년이 지났으니 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느덧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됐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알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남한의 정성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달거리 공연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김원중 달거리 공연’이 오는 29일(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 대장정에 들어간다.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찾아온다. 매달 아티스트와 스태프 50여명이 하나로 뭉쳐 통일을 향한 희망을 키워간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음악과 미술, 화려한 무대장치가 어우러진다. 강위원씨의 사회로 ‘김원중과 느티나무



밴드’, 아카펠라 ‘The Present’, 퓨전국악 ‘루트머지’, ‘강윤숙의 재즈 트리오’, 팝페라 ‘빅맨싱어즈’, 밴드 ‘프로로그’, ‘박성연 밴드’, ‘바닥프로젝트’, ‘우물안개구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또다른 볼거리는 무대를 장식하는 지역 작가들의 그림이다. 슬라이드 형식으로 작품을 선보이며 생동감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희원·주홍 작가가 큐레이터를 맡아 매달 작가 1명을 조명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방문하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www.kimwonjoong.com)를 통하면 공연 영상과 함께 리얼한 사진작가가 촬영한 기록사진을 만날 수 있다.

북한 어린이를 돕고 싶은 시민들은 공연 후 모금함에 정성껏 입장료를 내거나 후원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 356-0610-0074-53(김영숙), 공연 후원 농협 356-0610-0099-23(김영숙). 문의 010-3670-580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5월의 푸른 행진곡’

광주YMCA 청소년오케스트라·민트오케스트라 음악회...28일 빛고을문화관

광주YMCA ‘Dream청소년오케스트라’와 ‘민트오케스트라’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제9회 ‘5월의 푸른행진곡’을 개최한다. 28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1부 공연에서는 YMCA 회원동아리인 ‘광주엔시안오케스트라’의 요슬송, 청소년댄스동아리 ‘헤라’의 댄스공연, 대안학교인 ‘별별학교’의 난타공연이 진행된다. 특별히 올해는 광주YMCA 발달장애청소년 트리아영급교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공연을 준비했다.

2부 공연은 광주YMCA가 운영하는

‘Dream청소년오케스트라’와 ‘민트오케스트라’의 협연 무대가 펼쳐진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루슬린과 류드밀라’ 서곡,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제1악장, ‘황제왈츠’, ‘에스파냐 까니’, 영화 ‘포레스트 검프’ 등이다. 또 테너 윤성환과 베이스 김일동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이상 날지 못하리’, 푸니쿨리 푸니쿨라’ 등을 선사한다.

그밖에 광주YMCA 서구어린이합창단의 ‘창작동요메들리’, ‘아름다운 나라’의 합창도 마련돼 있다.

광주YMCA는 도심속 대안학교인 ‘Y

해밀학교’와 ‘별별학교’, 학교밖청소년작업장 ‘아시아피스커피’ 1호점, 2호점,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학교 밖으로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과 다양한 배움에서 건강한 지구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후원음악회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무대다.

공연 때 모금된 금액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후원기금으로 사용된다. 티켓 가격 성인 1만원, 청소년 5000원. 문의 062-234-0074. /김미은기자 mekim@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건네는 진도택의 위로

목포시립극단 정기 공연 ‘바다로 간 소풍’

26일·27일 목포시립극단 대공연장

‘연극으로 어루만지는 세월호 참사.’ 목포시립극단(예술감독 정경진) 제 31회 정기 공연이 26일(오후 7시30분), 27일(오후 6시) 목포시립극단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바다로 간 소풍’이다. ‘제7회 목포 문학상’ 희곡 부문 본상 수상작으로, 오월 광주를 다룬 ‘푸른 날에’로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정경진 예술감독 작품이다.

작품의 소재는 세월호 참사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의 귀환을 바라며 어머니의 상징인 진도택을 중심으로 해원과 씻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진도택이 죽은 아들 영호의 꿈을 꾸고 난 후 세월호가 침몰한다. 물속에 갇힌 가족을 찾아 먼길을 달려온 이들과 취재진들로 팽목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진도택의 큰 딸 영자가 자원봉사자로 진도에 내려오면서 지난 상처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김재영이 연출을 맡았으며 장은희, 김진수, 양국희, 김유미, 나상민, 박효선, 김세영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1-287-51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과 누드’

박만수 작가 개인전

내달 3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인체 곡선미를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는 박만수 작가가 ‘꽃과 누드’를 주제로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6월3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백, 능소화, 장미 등을 소재로 한 꽃 그림 20여점과 누드 1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주의적인 소재와 사실주의 기법에 바탕을 둔 구상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꽃은 동백이다. 남도를 대표하는 동백을 소재로 삼아 생명력과 활기를 캔버스에 담는다. 작품 ‘동백꽃 사랑’, ‘동백과 동백새’ 등 원색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배경은 짙은 청록이나 검은색으로 채워 꽃의 화려함을 강조한다.

동백과 함께 여인 누드를 담은 ‘동백아가씨’는 에로틱한 분위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크게 그린 붉은 동백 앞으로 누워있



‘동백아가씨’

는 나신의 여인을 배치하고 초록빛 동백새를 그려넣어 색채 대비를 통한 다원적 표현이 엿보인다.

또 ‘능소화꽃 그늘 아래서’, ‘노란 백일홍’, ‘백장미’, ‘흑장미의 사랑’ 등 다양한 꽃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일찍이 고(故) 오승운 화백에게 그림을 배운 박 작가는 오 화백의 형 오승우 화백에게는 “순수한 색채가 인상적이다”는 말을 들었을 만큼 원숙한 색채 구성을 보여준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

이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10초 내외 작품을 주로 배치했다”며 “작품을 보시고 삶의 원동력과 즐거움을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 박사를 수료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 미술대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개인전을 8회 열었고 조선대 미술대학·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232-18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음악영화 ‘천산의 디바’ 시사회 28일 광주극장

음악영화 ‘고려 아리랑 : 천산의 디바’ 특별 시사회가 오는 28일 오후 6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김소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고려 아리랑 : 천산의 디바’는 모든 것을 상실한 이들에게 노래와 가무로 위로를 선사했던 세기의 디바 방 타마라와 이함덕의 드라마틱한 삶과 예술적 성취를 담아낸 작품이다.

‘중앙아시아의 메르세데스 소사’로 불리는 방 타마라, ‘고려인 디아스포라 최

고의 춘향’으로 손꼽히는 이함덕은 이번 영화를 통해 80여 년 만에 세상에 소개되는 여성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재즈와 민요, 소비에트 유행가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세계를 선사한다.

이번 특별시사회에는 광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 300명을 초청하며 방 타마라와 김소영 감독이 참석한다. 또 방 타마라의 짙막한 공연도 진행된다. 영화는 6월 1일 정식 개봉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